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4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1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4. 11.(목)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위성원 사무관(044-203-4086)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9. 4. 11(목)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외국인투자 연구센터·코트라(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1분기**(1.1~3.31)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3월 31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마다 발표**되며, **상반기**(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19년 7월 중순 발표예정**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신고기준 31.7억불, 도착기준 26.2억불 기록 -
- 신산업분야와 스타트업 투자 본격화, 신고-도착비율 상승 -

Ⅰ. 종합

1 **(실적)**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35.7% 감소한 31.7억불, 도착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감소한 26.2억불을 기록함

○ 금번 FDI 실적은 역대 1분기 실적 중 신고기준 7위, 도착기준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 신고기준 10년 평균실적(32.6억불)과 유사하고, 도착기준 10년 평균실적(22.5억불)을 16.4% 상회하는 것임

【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불)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년평균
1분기	신고	16.8	15.4	20.1	23.5	33.9	50.6	35.5	42.4	38.6	49.3	31.7	32.6
	도착	9.3	13.5	16.4	18.2	15.0	37.8	32.2	21.1	30.5	31.1	26.2	22.5

2 **(주요 특징)** ①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등 신산업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② 우리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속 확대, ③ 양호한 신고-도착 비율을 보이고 있어 '19.1분기 외국인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① **(신산업 비중확대)** 신산업 분야 FDI 비중은 '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1분기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우리 신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FDI 중 신산업 금액(억불): ('14) 57 → ('15) 68 → ('16) 67 → ('17) 75 → ('18) 119 → ('19.1Q) 13.5

** FDI 중 신산업 비중(%): ('14) 30.0 → ('15) 32.5 → ('16) 31.5 → ('17) 32.6 → ('18) 44.2 → ('19.1Q) 42.5

'19년 1분기 신산업 주요투자사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의 생산기지 구축(獨, U社, 0.2억불)
▸**(차세대통신)** 5G관련 첨단 통신장비 기술 개발(핀란드, N社, 0.3억불)
▸**(첨단소재)** 고무와 플라스틱 성질을 결합한 고기능성 신소재 생산시설 투자(이탈리아, L社, 0.5억불)

② **(스타트업 투자확대)** 신약개발, 고급소비재,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FDI가 혁신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19년 1분기 스타트업 주요투자사례

- **(의약·바이오)** 신약개발 분야의 R&D센터 설립(美, P社 0.1억불)
- **(화장품·뷰티)** 온라인 뷰티 O2O(Online to Offline)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美, M社, 0.1억불)
- **(클라우드)** 클라우드와 AI를 결합한 독자적 운영체제 개발(홍콩, V社, 0.3억불)

③ **(양호한 신고-도착 비율)** FDI 이행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신고금액-도착금액 비율(82.4%)은 10년 평균(70.3%) 및 전년동기비율(63.0%)을 10%P 이상 크게 상회하고 있어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 1분기 신고대비 도착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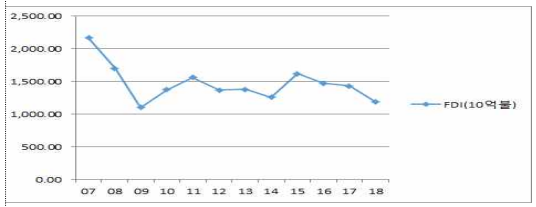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년평균
비율	55.3	87.3	81.6	77.4	44.1	74.7	90.5	49.7	79.1	63.0	82.4	70.3

3 **(전년 동기대비 감소요인)** 글로벌 FDI 하락추세, 기저효과, 제도변화로 인한 조기신고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인 주요요인임

① **(글로벌 FDI 하락추세)** '18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19%가 감소한 1.2조불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UNCTAD),

- '18년 1.2조불의 글로벌 실적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FDI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음
- 특히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투자국의 경우 최근 2~3년간 해외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

글로벌 FDI 추이 (단위: 십억불)



2009	2011	2013
1,179	1,568	1,425
2015	**2017**	**2018**
1,921	1,430	1,189

* 출처: UNCTAD('19.1월)

② **(기저효과)** 신고기준 '18.1분기 실적(49.3억불)이 최근 10년 평균(32.6억불)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19년 실적의 상대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형 프로젝트 유치여부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FDI의 특성상 우리나라 FDI의 분기별 실적 편차*는 매우 큰 것이 사실임

* 최근 신고기준 1분기 최고실적은 '14년 50.6억불, 최저는 '10년 15.4억불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임

【 최근 5년 1분기 5억불이상 투자 사례 (단위: 억불) 】

연도	투자 사례	금액
2014	•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룩셈부르크, C社, 비금속 광물제품, 19.0)	19.0
2015	• 부동산 및 지역개발 투자(미국, B社, 부동산, 6.0) • 기타 금융 투자(버진아일랜드, N社, 금융·보험, 10.0)	16.0
2016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몰타, K社, 정보통신, 5.1)	5.1
2017	• 생명보험업 관련 증액 투자(홍콩, T社, 생명보험업, 5.2), • 복합리조트 개발 투자(싱가포르, C社, 부동산, 5.0)	10.2
2018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영국, K社, 운송용 기계, 5.4) • 부동산 임대 및 지역개발 투자(중국, A社, 부동산, 8.0)	13.4
2019	• e-커머스 첨단물류센터 건립(헝가리, S社, 도·소매 유통, 5.6),	5.6

③ **(제도변화로 인한 조기신고)**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최대 7년)가 '18년말 종료됨에 따라, 당초 '19.1~2분기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일정을 '18년 하반기로 앞당긴 것도 금번 실적 감소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분석됨

* 조세감면 신청건수: ('16) 24건(14.3억불) →('17) 10건(4.8억불) →('18) 38건(20.3억불)→('19) 0건(제도폐지)

Ⅱ.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향후 전망

□ **(글로벌 FDI 전망)**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고착화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한국 FDI 전망)** 글로벌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5년 연속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지원을 집중

2. 대응방안

◈ 산업부는 ①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가고, ②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며, ③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해나갈 계획

① **(인센티브 강화)**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전통적인 인센티브 이외에도, 신산업 외투촉진펀드[1], 온라인투자매칭플랫폼[2]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해나갈 계획

1)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500억원, '18년)
2) 해외투자희망 국내기업과 국내투자희망 외국기업 수요를 반영한 단일매칭시스템(OASIS, '18년)

○ 또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주요내용
권칠승의원 대표발의('18.11월), 국회 상임위 상정('19.3월)

① **(현금지원 개편)** 신기술 분야 외투 유인을 위해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 신기술(173개)에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제품(2,769개) 추가

② **(미처분이익잉여금)** 외투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도 외투로 인정

* IMF·OECD 등 국제기준과도 부합하며 미국 등 투자이익 회수 촉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재투자를 유도

②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 IR을 개최하여 對韓 투자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국내 旣투자기업의 증액투자유도를 위해 '외투기업 카라반*' 등 국내 IR활동도 꾸준히 전개

* 지역소재 旣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으로 '18년 시작('18년 4회, '19년 1회 旣개최)

○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 지자체, IK, KITIA 등 외투유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투자의향이 확인된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 1:1전담관 지정 등 밀착지원을 통해 투자를 조기현실화해 나갈 계획

③ **(혁신성장과 연계된 프로젝트 중점유치)**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 신산업부문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유치하여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

○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의 국내이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국내에 혁신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

Ⅲ. 세부동향

1. 국가별 특징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❶ 유럽연합(EU)은 도착기준은 증가, 신고기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❷ 일본은 제조업은 소폭 증가, 서비스업은 감소
❸ 미국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對韓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❹ 중국은 서비스업, 제조업 부문에서 모두 감소

1 유럽연합(EU)(비중: ('18) 38.0% → ('19) 31.1%)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7.3% 감소한 9.9억불**을 기록 (비중 31.1%), 도착기준은 **30.5% 증가한 14.6억불**을 기록 (비중 55.8%)

('18) ①**운송용기계**(5.9억불, +542.0%), ②**전기·전자**(4.6억불, +475.6%), ③**금융·보험**(4.5억불, +51.1%)
('19) ①**도·소매(유통)**(4.3억불, +866.4%), ②**운송용기계**(1.6억불, △73.0%), ③**화공**(1.5억불, +1,045%)

○ **(EU發 FDI의 동향)** 노딜 브렉시트 우려를 비롯한 EU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으로 EU회원국이 역내투자에 집중하여 해외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부문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한 3.6억불, 서비스업은 25.3% 감소한 6.0억불을 기록

- **(증가업종)** 도·소매(유통)(0.4→4.3억불, +866.4%), 화공(0.1→1.5억불, +1,045.3%)에서 증가세를 보임
- **(감소업종)** 전기·전자(4.6→0.2억불, △95.1%), 운송용기계(5.9→1.6억불, △73.0%), 금융·보험(4.5→1.3억불, △70.6%)부문에서 감소

○ **(주요특징)** 전년대비 도착기준 증가했으며, 신고기준 감소세를 보였으나 첨단소재, 이차전지, 선진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짐

- **(도착금액 증가)** 도착기준 투자금액이 증가하여 예정된 외국인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산업)** e-커머스 등 선진물류 분야, 2차전지용 첨단소재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짐

EU發 FDI 주요사례

▸ **(선진물류)**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헝가리, S社, 5.6억불)
▸ **(이차전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 증설(독일, U社, 0.2억불)

2 일본(비중: ('18) 7.5% → ('19) 8.0%)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1.0% **감소한 2.5억불**을 기록 (비중 8.0%), 도착기준은 **35.4% 감소한 2.1억불**을 기록 (비중 8.1%)

('18) ①**정보통신**(1.5억불, +7,082%), ②**금융·보험**(0.8억불, +414.3%), ③**도·소매(유통)**(0.4억불, △43.8%)
('19) ①**기계장비·의료정밀**(0.8억불, +908.1%), ②**정보통신**(0.6억불, △61.5%), ③**도·소매(유통)**(0.4억불, +13.9%)

○ **(일본發 FDI의 동향)** 내수경기 회복세와 2020년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외투자보다는 일본 국내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대외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부문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61.4% 증가한 1.2억불, 서비스업은 55.5% 감소한 1.3억불을 기록

- **(증가업종)** 기계장비·의료정밀(0.1→0.8억불, +908.1%), 운송용기계(0.0→0.1억불, +5,812.4%)에서 증가세를 보임
- **(감소업종)** 정보통신(1.5→0.6억불, △61.5%), 금융·보험(유통)(0.8→0.3억불, △68.4%), 기타제조업(0.3→0.1억불, △70.9%)에서 크게 감소

○ **(주요특징)** 전체적인 감소세 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주력 분야의 투자는 견조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가 증가

- **(제조업 증가)** 의약분야와 의료정밀 분야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제조업 분야 투자규모가 증가하여(0.7→1.2억불) 구성비가 상승함(20.1%→47.0%)

* 일본發FDI 업종구성비 변화(제조업:서비스업): ('17) 53:47→('18) 20:80→('19.1Q) 47:51

- **(주력 분야)** 정보통신, 도·소매(유통)분야가 전년과 올해 1분기 모두 상위 유치업종에 해당하며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신산업 투자유치)** 암호화폐를 활용한 핀테크, 신약개발 스타트업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일본發 FDI 주요사례

▸ **(IT기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핀테크 시장 진출(L社, 0.5억불)
▸ **(의약품)** 선진 백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 백신 생산기지 구축(B社, 0.1억불)

3 미국(비중: ('18) 15.0% → ('19) 4.9%)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8.7% 감소한 1.6억불**을 기록 (비중 4.9%), 도착기준은 **92.3% 감소한 0.7억불**을 기록 (비중 2.7%)

('18) ①**정보통신**(5.1억불, +1,661%), ②**금융·보험**(2.0억불 , +726.2%), ③**도·소매(유통)**(0.1억불, △70.1%)
('19) ①**운수·창고**(0.3억불, +16,843%), ②**사업지원·임대**(0.3억불, +34,592%), ③**도·소매(유통)**(0.2억불, +236.7%)

○ **(미국發 FDI의 동향)** 글로벌 FDI 하락세 속에 ①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②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③한-미 금리격차 지속((美) 2.25~2.5%, (韓) 1.75%)등으로 對韓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美국가부채 변화: ('17) 19.9조불 → ('18) 26.0조불

○ **(부문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224.7% 증가한 0.2억불, 서비스업은 81.3% 감소한 1.4억불을 기록

- **(증가업종)** 사업지원·임대(0.0 → 0.3억불, +34,592.4%), 운수·창고(0.0 → 0.3억불, +16,842.7%)에서 증가
- **(감소업종)** 정보통신(5.1 → 0.1억불, △97.1%), 금융보험(2.0 → 0억불, △100.0%), 부동산(0.1 → 0.03억불, △62.6%)에서 크게 감소

○ **(주요특징)** 제조업에서는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며 전체적인 투자규모가 감소했으며 투자의 다변화 움직임도 포착됨

- **(서비스업 감소)** 정보통신(5.1 → 0.1억불, △97.1%), 금융보험(2.0 → 0억불, △100.0%)에서 크게 감소하여 전체투자 규모 역시 감소함
- **(제조업 증가)** 주력유치 업종인 운송용 기계, 전기·전자 부문의 증가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224.7%)
- **(투자대상 다변화)** 사업지원·임대, 운수·창고 분야에서 IT와 결합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는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선진물류를 중심으로 투자대상 다변화가 진행 중

미국發 FDI 주요사례

▸ **(선진물류)** 물류 센터 확장 및 첨단화를 목적으로 한 증액투자(L社, 0.3억불)
▸ **(유통채널확대)** 대규모 아울렛의 추가적 확장을 위한 증액투자(S社, 0.1억불)

4 중국(비중: ('18) 21.2% → ('19) 4.0%)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88.0% 감소한 1.3억불**을 기록 (비중 4.0%), 도착기준은 **45.5% 감소한 0.1억불**을 기록 (비중 0.5%)

('18) ①**부동산**(8.0억불, +10,691%), ②**전기·전자**(1.1억불, +3,649.9%), ③**기계장비·의료정밀**(0.7억불, +1,609.4%)
('19) ①**부동산**(0.4억불, △94.7%), ②**운송용기계**(0.4억불, +9,196%), ③**화공**(0.2억불, +1,682%)

○ **(중국發 FDI의 동향)**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외환보유고 감소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관리규정의 강화*로 해외투자가 감소하여 對韓투자도 감소함

* 불법적인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신원확인, 해외투자 제한('19.2.11, 최고인민법원)

○ **(부문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62.2% 감소한 0.7억불, 서비스업은 93.4% 감소한 0.5억불을 기록

- **(증가업종)** 화공(0.0 → 0.2억불, +1681.7%), 운송용기계(0.0 → 0.4억불, +9,195.5%) 부문에서 증가
- **(감소업종)** 부동산(8.0 → 0.4억불, △94.7%), 전기·전자(1.1 → 0.1억불, △93.9%), 부문에서 감소

○ **(주요특징)** 전체적인 감소세 속에서 세부 업종별로 등락을 보이면서 IT기술 관련 고부가가치 업종의 유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부동산 감소)** '18.1분기 최대투자부문인 부동산투자가 감소하며(8.0 → 0.4억불, △94.7%), 전체적인 감소세(10.5 → 1.3억불, △88.0%)를 보임
- **(제조업 감소)** 화공과 운송용기계 부문에서는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와 기계장비·의료정밀 부문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함
- **(신산업 투자유치)** 무선통신기기 부품, 데이터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중국發 FDI 주요사례

▸ **(통신기기)** 지능형 무선중개기 등 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A社, 0.3억불)
▸ **(정보처리)** 국내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V社, 0.3억불)

2. 업종별 특징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제조업(비중: ('18) 31.2% → ('19) 38.0%)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1.5% 감소한 12.1억불**을 기록 (비중 38.0%), 도착기준은 **41.0% 증가한 8.5억불**을 기록 (비중 32.6%)

('18) **운송용기계**(7.3억불, +222.6%), ② **전기·전자**(5.9억불, +200.9%), ③ **기계장비·의료정밀**(1.0억불, +89.0%)
('19) **운송용기계**(3.2억불, △56.1%), ② **식품**(2.6억불, 762.9%), ③ **화공**(2.4억불, +514.0%)

○ **(증가업종)** 식품(0.3→2.6억불, +762.9%), 화공(0.4→2.4억불, +514.0%), 의약(0.0→0.3억불, +17,472.4%), 기계장비·의료정밀(1.0→1.8억불, +86.5%)에서 증가함

○ **(감소업종)** 전기·전자(5.9→1.5억불, △74.8%), 운송용기계(7.3→3.2억불, △56.1%), 금속·금속가공제품(0.2→0.02억불, △90.1%)에서 큰 폭으로 감소

○ **(주요특징)** 전체적인 감소세 하에서도 일부 업종은 상승하였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현실화됨에 따라 도착금액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2 서비스업(비중: ('18) 67.7% → ('19) 60.6%)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2.5% 감소한 19.2억불**을 기록 (비중 60.6%), 도착기준은 **58.8% 감소한 10.3억불**을 기록 (비중 39.3%)

('18) ① **부동산**(10.3억불, +13.6%), ② **정보통신**(8.9억불, 1,564.1%), ③ **금융·보험**(8.3억불, △35.4%)
('19) ①**도·소매업**(8.6억불, +385.8%), ②**금융·보험**(5.8억불, △29.9%), ③**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6억불, +35.2%)

○ **(증가업종)** 도·소매업(1.8→8.6억불, +385.8%), 사업지원·임대(0.0→0.4억불, +2,082.3%),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2→1.6억불, +35.2%)에서 증가

○ **(감소업종)** 부동산(10.3→0.9억불, △91.1%), 정보통신(8.9→1.2억불, △86.0%), 금융·보험(8.3→5.8억불, △29.9%)에서 감소

○ **(주요특징)** 부동산(△9.4억불), 정보통신(△7.6억불), 금융·보험(△2.5억불)에서 감소했으나, 선진물류와 R&D부문 투자는 증가

3. 유형별 특징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그린필드형(비중: ('18) 72.1% → ('19) 68.2%)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9.1% 감소한 21.6억불**을 기록 (비중 68.2%), 도착기준은 **38.4% 감소한 14.2억불**을 기록 (비중 54.4%)

○ **(업종별) 제조업 감소**(8.2→6.8억불, △17.5%), **서비스업 감소**(26.8→14.8억불, △44.8%)

- **(증가업종)** 도·소매(1.0→8.2억불, +731.2%), 의약(0→0.3억불, +30,439%), 연구개발·과학기술(1.0→1.3억불, +24.0%) 부문에서 증가

- **(감소업종)** 부동산(10.3→0.9억불, △91.1%), 정보통신(6.9→1.2억불, △82.6%), 전기·전자(5.9→1.0억불, △83.7%), 금융·보험(5.9→2.1억불, 63.6%), 부문에서 감소

2 M&A형(비중: ('18) 27.9% → ('19) 31.8%)

◈ 신고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6.8% 감소한 10.1억불**을 기록 (비중 31.8%), 도착기준은 **48.9% 증가**한 **11.9억불**을 기록 (비중 45.6%)

○ **(업종별) 제조업 감소**(7.1→5.3억불, △26.2%), **서비스업 감소**(6.6→4.4억불, △33.0%)

- **(증가업종)** 식품(0.0→2.3억불, +13,118%), 금융·보험(2.4→3.7억불, +52.9%), 기계장비·의료정밀(0.0→0.2억불, +853.5%)에서 증가

- **(감소업종)** 운송용기계업(자동차)(6.8→2.0억불, △70.9%), 정보통신업(2.0→0.1억불, △97.4%), 숙박·음식점업(1.2→0억불, △100%)분야에서 감소.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